



법적 조대 수도 스님 양산 용주사 주석

부처님은 일월처럼 언제나 차별없이 중생을 비추고 있던 중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망상 때문에 그 빛을 가리고서는 부처님만 닮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아리석음입니다.

*스승의 마음과 행을 마음안에 계사는 부처님께 비추어가면서 생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센과 치히로...' 를 보고

일본에서 2천4백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관객을 동원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며칠전 보았다. 과연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명작답게 2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경쾌하게 흘러내려가게 만든다. 평범한 10살짜리 소녀 치히로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사를 가는 길에 겪는 한타지 모험담이다. 영화 곳곳에서 불교적인 가르침과 그의 탐식은 온전장을 아주 자랑으로 만든다. 끊임없이 삼키지만 항상 배고파하는 가오나시는 그러나 늘 외로운 모습이다. 한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욕심은 끝이 없지만 마음속은 허전하고 비어있는 현대인들의 황금만능주의를 상징하는 것 같다.

영화 곳곳에서 불교적 가르침이 느껴지자 우리 불교계는 왜 이렇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도 작절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심을 갖지 못하나 아쉬움이 들었다. 불교는 이러한 작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무궁무진한 문화콘텐츠의 보고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도 불교계는 불상, 탑, 종 등 하드웨어적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불교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더라도 부처님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쉽게, 대중적인 감동을 주면서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인데 말이다.

불교 하면 대부분 아직도 어렵다, 고루하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등등을 연상한다. 이 고정된 이미지가 벗어나는 길은 보편적이고 대중적 매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다. '치히로'를 보면서 불교가, <법화경>의, 친구가 웃속에 보배를 넣어놓았음에도 자신에게 보배가 있는 줄 몰라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처지처럼 느껴져 더욱 안타까웠다.

이경숙(취재 1부 부장)

주5일 근무제 확대 따라 사찰 역할 증대

환경수호 등 공익기능 강화 필요

역사·문화·교육·휴식의 장으로 템플스테이 실시 삶의 질 향상 기여

사람은 불교신앙의 장소이자 모든 사람을 위한 열린공간이다. 종교의 다름을 따지지 않는 불교의 포용성은 국민 모두에게 전통문화 향유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전통사찰은 그 입지의 특성상 이미 많은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역사·문화·교육의 장, 쉼터, 자연환경수호 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문화와 정보창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찰의 공익기능은 국민의 세균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소투자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국민 복지'이기도 하다.

최근 주 5일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여가 레저문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찰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형 포교모델이라 할 다양한 문화이벤트 즉 사찰 내 전시와 공연,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사찰에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상적인 형태의 포교이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화이기도 하다.

시민 교육 공간으로 사찰의 개방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사찰이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측면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재 교실, 템플스테이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해야

환경의 호법신장이기도 하다. 사찰이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불법을 홍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보화 사회가 진행됨수록 커지는 지역간, 계층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찰이 지역정보창구로 거듭나야 한다. 정보화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농촌과 산촌지역 지역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귀의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이병인(밀양대 교수)은 "환경,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찰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며 "사찰 기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때 사회간접자본 투자 측면에서 정부지원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우리도 연꽃처럼... 진흙탕에서 자라면서도 청정한 꽃을 피워 올리는 저 연꽃처럼, 세간사 온갖 사비분별에 흔들림 없는 불자로 살 수 있기를... 본디 우리 본성도 저 백연(白蓮)처럼 티없이 맑았음을 알고 사는 우리, 내 마음이 청정한 온 세상이 청정하다'는 가르침을 항상 새겨야겠다.

김재형 원사=고영매 기자

아시안게임 때도 템플스테이

33개 사찰 상설화... 낙산사 등 3寺 추가 지정

"템플스테이의 한국 불교 홍보효과를 광고비로 따지면 조계종 1년 예산을 웃돌 것이다."

950여명의 외국인인 33개 전통사찰에서 체험한 템플스테이가 '월드컵을 흥분시켜 가장 주목받은 문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33개 지정 사찰들은 오는 10월 아시안게임은 물론 상설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기로 했다.

통도사와 법어사 삼광사 등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부산지역 사찰들은 대회 기간중 템플스테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으며, 예산 수역사와 강릉 낙산사, 서산 부석사 등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상운 스님은 오는 9월 포교원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운영자 평가회의에서 '템플스테이는

중단 분류로 실추된 한국불교의 이미지를 기사화생 시키고, 그 존재마저 모르던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각인시킨 엄청난 국제포교의 성과를 낳았다"며, "템플스테이를 문화 관광자원으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구독신청 (02)737-0090

가사 통일화 작업 구체화 18일 의제 실무연구회 발족

조계종은 18일 오후 2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의제실무연구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승가 의제 개혁에 나섰다.

의제실무연구회는 월유(계단위원장) 위원장, 중진(법제위원장) 위원장, 무관(교재편찬위원장) 위원장, 무상(법주사 부주지) 스님과 조계종 기획총무, 사무 국장과 복식연구가 김경숙씨 등 8인의 연구위원과, 교육원 연구과장, 교무주임, 기획주임 등 3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제실무연구회는 가사에 초점을 맞춰, 현재 법제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는 가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가사의 생상을 통일하는 한편, 조계종 스님들의 알 수 있게 하는 휘장마크를 마련한다. 또 의제법 개정 및 의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 의제 개혁 작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문화 체험하고 신심도 키우고

가짜! 부다피아 어린이랜드

현대불교는 불교 일상의 주인인 법 새싹들을 키우기 위해 제 5회 부다피아 어린이 어린이랜드를 연다. 마법공통 법주사와 놀이시설이 가득한 유스타운,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존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어린이랜드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일 정: 2002년 7월 30일(화)~8월 1일(목) 2박3일
 ●장 소: 속리산 법주사, 유스타운 일대
 ●대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300명)
 ●참가비: 7만원
 ●준비물: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구, 세면도구, 모토
 ●문의전화: 02-738-7860
 ●은행계좌: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출발: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도착: 8월 1일 오후 6시 조계사 풍은사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협찬: (주)보덕학회, 신수회
 ●후원: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풍은사

물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전자신도증

1. 사찰 신도증과 신용카드의 기능 등이 결합된 전자신도증을 소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있다 ②없다

2.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①편리성 ②불자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③사찰에 대한 소속감 고취 ④기타

설문 참여: 7월 18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부정경험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9호 9면에 실립니다.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물"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 02-725-1132
대표) 02-737-8881